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4 Issue | Vol. 5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현지 및 외국 기업 상공회의소: 이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십시오 —page 1-2
- IMF: 필리핀 성장률, 아세안 최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 page 2-3
- Bii는 올해 투자 승인이 1.6조 페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page 3-4
- ADB, 필리핀 성장 전망 유지 — page 4
- 한국 증권거래소, 국제청과 기업 데이터 공유 — page 5
- SSS, 혜택 및 납부에 관한 가짜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고 — page 6
- 외환 규제 위반 시 BSP, 최대 100만 페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page 6-7

현지 및 외국 기업 상공회의소: 이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십시오

July 17, 2024 | Alden M. Monzon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세 번째 국정연설(Sona)을 발표하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화요일,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국가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1개의 계류 중인 입법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의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JFC) 및 기타 저명한 비즈니스 그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포괄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7월 22일 Sona를 앞두고 이러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21개의 조치가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및 글로벌 경쟁력을 통한 포괄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혁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연합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국정연설을 기대하며 이러한 남은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의회 및 귀 행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편지는 덧붙였습니다.



Ahead of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s third State of the Nation Address, the JFC and other prominent business groups have endorsed 21 pending legislative measures for prioritization to help improve the overall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country. —Malacañang photo

목록의 최우선 순위는 헌법에서 외국 자본 제한의 자유화입니다. 이는 헌장이 정치적 변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의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제안된 법안들은 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디지털화에 관련되어 있고, 일부는 노동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며, 몇 가지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조치 목록의 선두에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과 비용을 낮추고 인프라 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필리핀의 인터넷 비용을 낮추기 위한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이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또한 전자 상거래법과 지적 재산권 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이를 국가의 조약 의무 및 국제 모범 사례에 맞추고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가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 지방 정부 단위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또는 전자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그룹은 또한 위성 기반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되지 않은 지역 사회와 소외된 지역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위성 기반 기술 촉진법을 중요한 법안으로 나열했습니다.

생산성 조치

노동에 대해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정부가 국가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감축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취업을 찾는 동안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근무와 기타 유연한 근무 형태 설정에서 미국 복귀 및 세금 인센티브 법 및 필리핀 경제 자유 구역 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비즈니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월 통합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비근무 공휴일의 수를 조정하여 이월 국가와 이월 국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Cont. page 2]

현지 및 외국 기업 상공회의소: 이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십시오

[Cont. page 1]

또한 기업계는 기업과 잠재적 견습생 양쪽 모두에게 더 매력적인 현재의 견습 프로그램을 추가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은행 예금 비밀 보호법을 개정하여 Bangko Sentral ng Pilipinas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특정 조건 하에서 예금을 조사하거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정부 기관 사무실에서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 및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자유 법안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그룹은 또한 모든 공항의 규제 및 운영을 담당할 필리핀 공항 관리청을 창설하도록 요구했으며, 필리핀 항만 관리청(PPA) 조례 개정을 통해 PPA가 운영하는 모든 항구를 더 능력 있는 별도의 공공 부문 기관으로 이전시키기를 요청했습니다.

건강 관리, 연금 개혁

기업계는 재난 저항성 부서를 창설하는 법안을 지원하여 재난 위험과 취약성 감소 및 관리의 계획, 조정, 모니터링, 감독 및 실행을 주도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 따르면 우선 처리해야 할 나머지 법안은 자본 소득 및 금융 세 제도 개혁; 전염병 방지 법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기; 필리핀 연금 제도 개혁; 공공 공사 계약 시 15% 국내 우대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 법률 138(국기법) 폐지; 농지 소유권 상한을 5헥타르에서 24헥타르로 높이고 농지 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그리고 국제 해운 무역 경쟁력 법안입니다.

JFC는 미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및 한국 비즈니스 상공회의소, 그리고 필리핀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협회를 포함한 연합체입니다. 다른 서명 그룹으로는 국제 해운업 협회, 세관 브로커 상공회의소, 필리핀 착용 가능한 수출업자 연합회,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 필리핀 경영 협회,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재단 등이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69022/local-foreign-biz-chambers-make-these-21-bills-a-priority](https://business.inquirer.net/469022/local-foreign-biz-chambers-make-these-21-bills-a-priority)

IMF: 필리핀 성장률, 아세안 최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July 17,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Photos show buildings in the Taguig City business district dwarfing houses on February 6, 2024.

STAR / Ernie Penaredondo

필리핀 마닐라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필리핀은 다음 두 해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예상되며, 아시아에서도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여전히 6%로 유지했습니다.

이 성장률이 실현된다면,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빠르고, 인도의 7%에 이어 아시아의 일부 경제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GDP 성장률에서 중국(5%), 인도네시아(5%), 말레이시아(4.4%), 카자흐스탄(3.5%), 이란(3.3%)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필리핀은 태국(2.9%), 이집트(2.7%), 한국(2.5%), 파키스탄(2%), 사우디 아라비아(1.7%), 일본(0.7%)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IMF는 필리핀 경제가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목표 역시 ASEAN에서 가장 빠르고, 아시아 경제국 중에서는 인도의 6.5%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성장 예측은 또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ASEAN-5의 IMF 예측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이 지역이 올해 4.5% 성장하고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중 국제 금융 기관은 "아시아의 신흥 시장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인도와 중국의 강력한 성장이 올해 글로벌 성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IMF는 "다음 다섯 년 동안의 전망은 주로 신흥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3]

IMF: 필리핀 성장률, 아세안 최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Cont. from page 2]

지난 6월 초 IMF는 올해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을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6.2%에서 6%로 낮췄습니다. 이는 주로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미션 체프 엘리프 아르바틀리 사게가드는 국내 수요, 투자 및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25년에 GDP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완화된 통화 정책도 내년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평균 3.4%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전체 연간 인플레이션 6%보다 낮습니다.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의 3.8% 위험 조정 예측보다도 낮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17/2370653/imf-philippines-growth-fastest-asean-2nd-asia](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17/2370653/imf-philippines-growth-fastest-asean-2nd-asia)

BoI는 올해 투자 승인이 1.6조 페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July 17,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올해 투자 승인 공약은 외국 직접 투자(FDI)의 증가 예상과 녹색 레인 인증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1.6조 페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무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무역 부차관 겸 투자위원회(BoI) 매니징 헤드 세페리노 S. 로돌포는 중앙 은행이 올해 FDI 순 유입 예상을 인상했다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코 센트럴 농 필리핀스가 4월 FDI 순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1월-4월 숫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6조 페소의 상한선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는 월요일 Tatak Pinoy Act 포럼 무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신 BSP 데이터에 따르면 4월 FDI 순 유입은 연간 36.9% 감소하여 5억 5천 6백만 달러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FDI 순 유입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한 35억 2천 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29억 7천 1백만 달러).

BoI는 올해 투자 공약을 1.25조 페소에서 1.5조 페소로 설정해 왔습니다.

BoI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투자 승인액은 상반기에 9500억 페소에 이르러, 연례 기관 목표인 올해 1.6조 페소의 59.4%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BoI가 1.26조 페소의 투자 공약을 승인했습니다.

로돌포 씨는 그린 레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이번 해 더 높은 투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부 기관에 그린 레인을 설정하여 우선적이거나 전략적인 투자의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One-Stop Action Center for Strategic Investments에는 현재까지 2.32조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등록된 총 프로젝트는 1.31조 페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파이프라인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1조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영어와 필리핀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그린 레인 시스템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 중 65%인 65개가 재생 가능 에너지(RE) 프로젝트로, 총 비용은 1.95조 페소입니다.

BoI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승인된 74개 프로젝트 중 32개만 BoI에 이미 등록되었으며, 이들의 총 프로젝트 비용은 1.31조 페소입니다. 나머지 42개 프로젝트는 아직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며, 이들의 총 비용은 1.02조 페소입니다.

로돌포 씨는 BoI가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를 실제 등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무역장관 겸 BoI 의장 알프레도 E. 파스칼이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대통령의 출장 기간 동안 확보한 거래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65개 프로젝트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ont. page 4]

BoI는 올해 투자 승인이 1.6조 폐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ont. from page 3]

시작된 프로젝트 중 12개는 이미 운영 중이며 투자 유치 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3억 2천 8백만 달러입니다. 21개 프로젝트는 16억 달러 규모로 등록되었지만 아직 운영 중이 아니며, 32개 프로젝트는 170억 달러 규모로 등록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작된 프로젝트들은 대통령 출장 기간 동안 모은 6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리드 중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총 201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17/608544/boi-says-investment-approvals-may-hit-p1-6t-this-year/>

ADB, 필리핀 성장 전망 유지

July 18, 2024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2025년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ADB는 올해 필리핀 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상하며, 이는 올해 초 전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전망은 이전 4.9%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다중 자금 기관은 최신 판매의 '아시아 개발 전망'(ADO)에서, 지역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수요가 아시아와 태평양의 성장 전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4.9%로 유지되었으며, 필리핀의 성장 예측도 6.2%로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저하와 통화 완화는 가계 소비와 투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ADB는 필리핀의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올해 6%에서 3.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ADO 보고서와 동일한 예측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식품 가격의 완화와 높은 금리의 잔여 영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전 3.2%에서 2.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한 팬데믹 이후 회복 이후, 수출이 회복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술과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수요로 인해 여러 아시아 경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DB는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대부분 지역은 지난 해 하반기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본적인 요소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주요 경제국의 선거 결과 불확실성부터 금리 결정과 지역정치적 긴장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알버트 파크 ADB 주요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ADB는 지역 전반에서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 경제국에서는 여전히 가격 압력이 높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부 경제국에서 불리한 날씨와 식품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식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고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PR China)의 성장 전망은 이번 해 4.8%로 유지되었으며, 서비스 소비의 지속적 회복과 강력한 수출 및 산업 활동 증가가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부동산 부문이 걸림돌입니다.

ADB는 인도의 2024년 전망도 7%로 유지했으며, 제조업 성장과 건설 분야의 강력한 수요를 주도로 인도의 산업 부문이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의 농업은 예상 이상의 문순을 바탕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 투자를 주도로 한 투자 수요도 강하다고 ADB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성장 전망은 내년까지 4.6%로 유지되며, 국내외 수요의 견고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올해 전망은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 이전 예측인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관광 및 인프라 지출 증가와 함께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채광 활동 회복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ADB는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adb-maintains-growth-outlook-for-ph/

한국 증권거래소, 국세청과 기업 데이터 공유

July 18, 2024 | R.M.D.Ochave | BusinessWorld

한국 증권거래소(SEC)는 정부의 세금 징수 개선을 돕기 위해 국세청(BIR)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SEC는 BIR과 데이터 공유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BIR은 세금 평가 및 징수에 필요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BIR은 SEC에게 자료 검증을 통해 TIN(세금 식별 번호)을 제공하여, 증권 시장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몇몇 설립자들이 가짜 TIN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결함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SEC 의장 Emilio B. Aquino는 자신들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출시식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증권거래소(SEC)는 세관과 협상 중에 있어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관 세금, 특소세 및 기타 세금 징수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필리핀 이민국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국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리핀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과 협력하여 정부 조달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합법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재정부는 세금 관리 개선과 국유자산의 민영화와 같은 비세금 수익 증대에 의존하여 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SEC가 Swift Corporate And Other Records Exchange (SCORE) 프로토콜, Zuper Easy Registration Online (ZERO), Electronic Submission Authentication Portal (eSAP), Foreign Investments Registration Station (FIRST) 그린 레인 유닛 및 Electronic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Entity Name and Data (eAMEND) 등 다섯 가지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SCORE 프로토콜은 BIR과 같은 파트너 규제 및 집행 기관의 회사 정보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는 설립 공고서, 일반 정보 시트 및 감사된 재무 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변화를 채택하는 데 충분히 빠르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근 국가들은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Aquino 의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SEC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EC ZERO는 회사 등록 신청의 전자 단순 처리(eSPARC)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청자가 eSAP를 통해 양식을 디지털로 인증할 수 있게 합니다.

eSAP 플랫폼은 SEC ZERO와 통합되어, 서류에 수기 서명을 첨부하고 하드 코피를 제출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합니다. 이 플랫폼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문서의 전자 인증을 수행합니다.

SEC ZERO와 eSAP 플랫폼을 통해 신청자는 언제 어디서든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FIRST 그린 레인 유닛을 설립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외국 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등록, 면허 취득 및 수정은 모두 그린 레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외국 소유 신청서는 이제 온라인 등록소의 다른 모든 신청과 함께 대기열에 들어가지 않고, SEC FIRST 유닛의 특별 레인으로 재지정되어 처리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SEC는 말했습니다.

eAMEND 온라인 포털은 기업 신청서의 수정 처리 및 승인 결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수정 증명서의 디지털 사본을 발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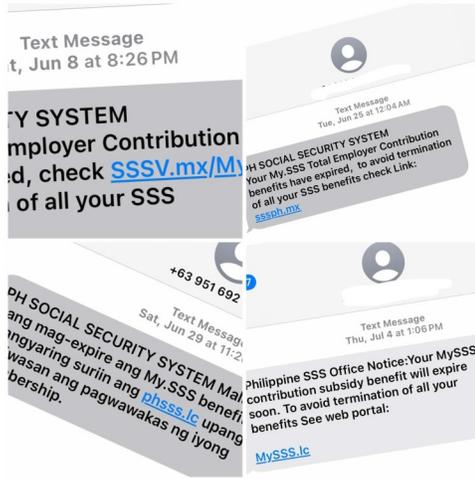
PHILIPPINE
GUMBAN

STAR/EDD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18/608789/sec-to-share-corporate-data-with-bir/>

SSS, 혜택 및 납부에 관한 가짜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고

July 18, 2024 | By Manila Bulletin



사회보장제도(SSS)에서 혜택 청구나 납부 만료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나요? 주의하세요, 그런 메시지들은 가짜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SSS는 회원들과 대중에게 SSS 대표로 위장한 악의적인 개인들이 보내는 속임수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받는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SSS 회원 서비스 및 지원 그룹의 노르미타 M. 닥터 부사장은 혜택 청구, 납부 만료, My.SSS 등록과 관련된 가짜 문자 메시지에 대한 회원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그것은 My.SSS 계정의 SS 번호와 로그인 자격 증명서와 같은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닥터는 말했습니다.

닥터는 회원들과 대중이 보낸 사람을 확인함으로써 가짜 문자 메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MS 발신자는 'SSS'여야 하며 공식 SSS 웹사이트는 www.sss.gov.ph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에서 온 경우, 그것은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내진 사기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희 SSS 특별 수사부(SID)는 이미 이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이 가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문자 사기 불만 신고'를 국가 통신위원회(NTC)에 제출하여 정부가 사기 문자 메시지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기꾼들과 자신의 My.SSS 계정의 SS 번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기타 로그인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My.SSS 계정이 침해되어 사기 거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닥터는 이 사기 문자 메시지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필리핀 국가 경찰의 사이버 범죄 단위와 국가 수사국의 사이버 범죄 부서 등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신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저희 SSS SID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는 사기 문자 메시지 송수신자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SSS SID에 fid@sss.gov.ph 이메일이나 (02) 89247370 전화로 사기 문자 메시지 송수신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쳤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7/18/sss-warns-against-bogus-texts-about-benefits-contributions>

외환 규제 위반 시 BSP, 최대 100만 페소의 과태료 부과 가능

July 18,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 ng 필리핀 (BSP)은 외환 (FX) 거래에 대한 보고 지침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위반에 대해 최대 100만 페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통화위원회는 FX 규정을 추가로 개정하여 BSP가 FX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가격 안정을 촉진하고 유지하며, 금융 안정성 및 은행의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5월에 페소가 20개월 최저치로 하락한 외환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후입니다. 수요일에 달러당 58.295 페소로 마감하여 화요일의 58.385 페소에서 9 센타보를 강화했습니다.

원형에 따르면, 통화위원회는 결의 제764호에서 외환 거래 규정의 매뉴얼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Cont. page 7]



외환 규제 위반 시 BSP, 최대 100만 페소의 과태료 부과 가능

[Cont. from page 6]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새로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승인된 인가 에이전트 은행(AAB), AAB 외환 회사, 해외 은행 단위(OBU), 대표 사무소 및 그들의 이사, 신탁자, 임원 및 직원(DTOE)에 대한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부과입니다.

BSP는 "각 거래 위반에 대해 최대 100만 페소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의 위반에 대해 달력 일당 10만 페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용 가능한 법률, 통화위원회(MB)의 명령, 지시/지침 또는 규정, 혹은 총재의 명령, 지시/지침 또는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누락으로, 한 번의 사례/경우에서 완료된 것"으로 정의된 거래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위반은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누락된 순간부터 위반이 중단될 때까지 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원형에 따르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제재의 부과에서 공정성, 일관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BSP는 각 사례의 동반된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는 위반 또는 불규칙성의 성격과 중요도, 금융 기관의 규모 및 기타 가중 및 완화 요인을 포함합니다."

BSP는 또한 지연된, 오류가 있는 및 미제출된 보고서 등 보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보고서의 정의를 포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보고 기준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벌칙도 제공합니다. 주 보고서에 대한 보고 위반의 금전적 제재는 대표 사무소에 대해 300페소부터 통합, 상업 또는 이슬람 은행에 대해 3,000페소까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연된 보고서에 대한 벌금은 지연된 달의 일 수에 벌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정책 위반에 대한 관련 BSP 감독 금융 기관(BSFI)에 대한 통보 절차 뿐만 아니라 항소와 재검토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은행들이 BSP의 보고 기준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진하고, BSFI와/또는 그들의 DTOE 사이에 책임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말했습니다.

BSP에 제출된 보고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이어야만 보고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출 및 검증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BSP가 정책 연구 및 경제 및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연합 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O. 아순시온은 개정된 규정이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BSP의 외환 안정성 목표를 달성하고 외환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은행들의 최종적인 준수는 산업에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4월에는 통화위원회가 인가 에이전트 은행이나 그들의 단위가 합법적 거래를 위해 외환 자원에 접근하고 문서 요구 사항, 절차 및 보고를 간소화하는 외환 거래 규정 매뉴얼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18/608787/bsp-may-impose-up-to-p1-m-fine-for-violations-of-foreign-exchange-rules/#google_vign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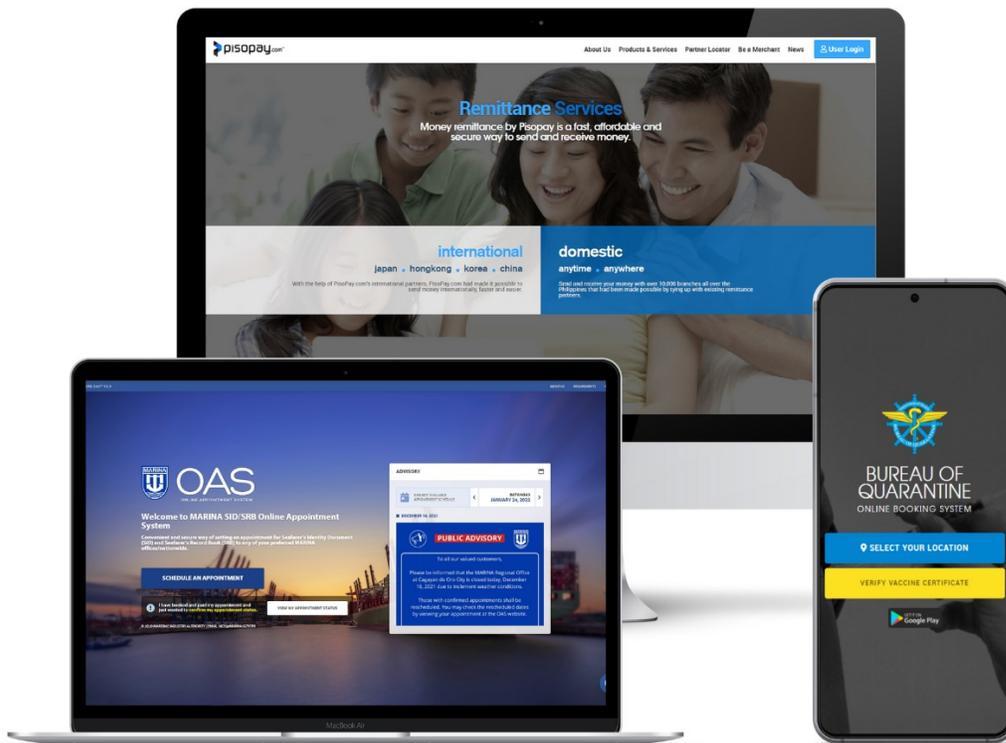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